

Dokdo Volunteer Forces' Crisis Management and Modern Spirit of Righteous Army

Seung Hak Na⁺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298 Daesung-ro, Sangdang-gu, Cheongju, Korea

Abstract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sovereignty over Dokdo,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consolidate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We examined about the Dokdo Volunteer Forces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trol over Dokdo. The Dokdo Volunteer Forces are the modern version of righteous army against Japan's pillage of Dokdo during the turmoil by the Korean War. The root of the emergence of righteous army in other times was organized during a national crisis, while the Dokdo Volunteer Forces started from the personal motivation of overcoming a crisis. This is why we have to remember and inherit the spirit to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righteous army, the sprit of righteous army, Dokdo, Dokdo Volunteer Forces

1. 서론

우리의 역사 속, 의병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민족적 장래를 위해 다수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한말 시대의 의병들은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서럽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때도 있었다.

오늘 인류의 역사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세계가 세력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므로 유사시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 의병활동 이야말로 요청되는 덕목일 것이다.

그래서 의병은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

했을 때 남녀노소, 신분의 격차를 넘어 출현되었다.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1967년에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유학생이나 청년들이 자진해 모국으로 돌아와 전장으로 나갔다. '나라사랑' 즉, 애국심은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가 되어 아랍연합국을 몇 시간 만에 크게 승리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병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임진왜란시 의병 활동과 한말 의병 활동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의병 활동의 연구는 해당 인물의 지역이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의 성분 분석, 창 의 동기, 의병과 관군과의 관계, 의병의 정신, 의병의 문화 등에 대해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Kim, 1996; Yoon, 1996; Shin, 2008; Lee, 1996; Oh, 2017; Yoo, 2004).

⁺ Corresponding author: Seung Hak Na, Tel. +82-43-229-7859, e-mail. shakna@naver.com

본 논문의 주제와 유사한 독도지역에서의 의병활동 안용복 장군에¹⁾ 관한 연구로는 안용복 사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울릉도와 독도 인식 등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Son, 2014; Park, 2012; Kim, 2008; Jang, 2013; Nam, 2005). 또한 독도의용수비대에²⁾ 관한 연구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선양 사업방안, 독도 영토주권 수호 정신 등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Kim, 2010; Yoon, 2016; Na, 2017; Na, 2009).

독도는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적 문헌에 의하여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2년 이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일본 측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독도가 한일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과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독도 지역에서 안용복 장군의 활동을 포함한 근대 이전의 의병활동과 근대 이후 독도의용수비대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고찰 하되, 독도의용수비대가 어떻게 조직되어 활동하였는지, 즉 독도의용수비대인 의병 출현이 일반적인 의병처럼 지역에서 국가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집하여 의병이 조직되었는가 아니면 지역 및 조정의 요구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하였는가를 분석하여 현대적 의병 출현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세에서 기억해야 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위기관리의 개념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危機管理)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란 다양한 의미의 위기관리하는 것을 말한다(Chae, 2004: 22).

국가적 위기란 특정 시기에 국가차원에서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한 조치를 독자적으로 혹은 국제적 연대 속에 취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적 위기는 국가의 안위를 심각히 위협하는 대외적 사건이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충격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리더십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고조 상태임을 의미한다(Chae, 2004: 23).

이처럼 국가 및 국제적 위협으로 위기 발생시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적 위협과 국제적 위협으로는 전쟁뿐만 아니라 내란, 폭동, 혁명, 테러, 영토분쟁, 경제적 문제인 경제 파탄, IMF, 오일쇼크, 자연재해, 전염병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내외적 상관성을 가지므로 위기관리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위기관리 목표는 위기 발생으로부터 나타나는 피해의 강도를 최소화시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위기를 사전에 준비(preparedness)하고, 발생 시에는 최소화를 위해 완화(mitigation) 하도록 즉각 대응(response)하고 복구(recovery) 하도록 해야 한다.

1) 조선 숙종 대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인 것을 일본 막부가 인정하도록 활약한 자이며, 1964년 경상북도, 해군본부와 경상남도 안문중친회가 공동으로 안용복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이때부터 안용복의 업적을 기리고 장군으로 칭호 하기 시작했다.

2) 홍순철을 중심으로 조직한 명칭은 '독도수비대'(정식 명칭은 독도사수특수의용대)이지만, 본고에서는 현 법령상 명칭인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법률 제11028호, 2011.8.4.

2. 의병 및 의병정신의 개념

의병(義兵)은 '정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을 뜻하는 말이다. 이처럼 의병이 군사행동을 통하여 '정의로움'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의병이 추구하는 정의로움은 '국가적 정의'를 뜻하는 의미일 것이다(Doopedia). 따라서 의병이란 바로 국가의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목적 하에 스스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사람 또는 집단을 이룬 자위군(自衛軍)을 말한다(Korean National Culture Encyclopedia, 2018.10.28).

우리 역사 속에서 의병이 맡았던 역할은 정규 군사력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시켜 주는 역할과 또 다른 측면으로 정규 군사력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의병의 역할은 정규 군사력에 의하여 필요한 부분만 인정되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다. 물론 의병들에게는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의병은 전통적으로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고려 및 조선 시대를 거쳐 조선 말기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조선 말기의 의병은 항일 독립군의 모태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 시대의 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쓰였던 것이고(Youn, 1996: 17), 역사를 상고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이미 그 의미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 의병과 한말 의병은 역사 속에서 실재하는 의병운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의병 문화는 바로 의병이라는 역사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확정하여 낼 수 있는 모든 의식과 삶의 줄기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의병의 정신은 사건들 속에 의병들의 의식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병정신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삶이 구체적으로 문화형식으로 투영되고, 문화형식으로

구체적 표현을 통하여 받아들인 의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3. 의병활동과 위기관리의 상관성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을 통해서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끊임없는 수난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슬기롭게 이겨내며 나라를 보존해왔다.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을 기저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호국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은 외침 등으로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의지의 원동력으로 작용되었다(Kim, 2011: 214).

홍익인간의 정신은 상무 호국정신 및 이와 관련된 고조선 시대 5訓, 삼국 시대 5戒, 조선 시대 5事 등으로 이어져 오늘날의 민족정신으로 살아남아 있다. 전통적 상무정신은 고구려의 조의선인(阜衣仙人) 사상, 백제의 싸울아비(戰士) 정신, 신라의 화랑정신, 고려의 상무정신, 조선의 의병정신 및 독립정신 등으로 구현되었다(Kim, 2011: 230-233). 이처럼 상무 호국정신은 다른 민족과 투쟁을 통해 굳건히 다져졌다.

우리는 많은 외침 속에도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흐르는 뜨거운 상무정신과 호국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병이 출현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역사 속의 중심에는 호국의지가 충만한 젊은이들로 뭉쳐진 의병들이 있다.

6.25전쟁 기간 중 울릉도 주민들은 일본인들의 침탈로 울릉군수와 울릉군 경찰서장에게 침탈에 관한 시정을 바랐지만, 6.25전쟁 상황으로 원만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홍순철의 수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홍순철은 관할 관공서에 여러 번 도움을 청하였으나, 대부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의병'은 일회적으로 끝났던 사건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병'이라는 것은 '유림의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성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의병과 관계된 역사로서 유학이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나갔던 시대, 유학적 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시대인 조선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 Analysis framework of research

따라서 홍순철은 6.25전쟁으로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상황을 인식하여, 독도지역에 대한 일본인들의 침탈로 위기의식을 갖게 되어,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침탈을 막으려 하였을 것이다.

4. 연구 분석의 틀

상술한 바와 같이 독도의용수비대에 관한 기존 연구는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신계승과 주권 수호를 위한 고찰 등 살펴보는 정도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도 영유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조명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첫째, 독도의용수비대 조직이 일반적인 의병처럼 지역 및 조정에서 의도적으로 모집하여 의병이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지역 및 조정에서의 요구 없이 울릉도 청년인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하였는가?에 대한 의병 출현의 근류를 밝히는 데 있고, 둘째,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에 대해서는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가 주장한 조직의 형태인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Amitai, 1975)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는 어느 조직 형태로 의병이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정당화하고 공고화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Figure 1>과 같이 연구

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에 대해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일이 절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III. 독도지역 의병의 위기관리와 의병정신

1. 근대이전의 의병 활동

1) 신라 땅이 된 우산국(于山國)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⁴⁾ 우산국은 명주(溟洲=강릉) 바로 동쪽바다 한 가운데 있는데, 울릉도라고도 했다.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되,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위세로써 굴복시키기는 어려우나 피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 하고, 이에 나무로 만든 사자를 전선(戰船)에 싣고 우산국에 가까이 가서 거짓말로 고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자를 풀어 죽이겠다고 호통을 치자 그들이 곧 항복하였다.⁵⁾

우산국은 고려를 건국한 왕조에게도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 13년(930년)에 우릉도(宇陵島)에서 백길(百吉), 토두(土豆) 두 사절을 보내어 조정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⁶⁾ 그로부터 약 80년 동안 우산국은 본토와 조공 관계를 맺으며 보호받아왔다. 그러다가

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智證王 13年.

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智證王 13年.

6) 『高麗史』 卷1, 太祖 13年.

11세기 초엽(현종 9년)에 동북 여진족의 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⁷⁾ 이 때 우산국 중에 일부는 여진족에게 잡혀가고, 일부는 동해안 쪽으로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종에 이어 덕종이 왕위에 오르자 1132년에도 고려 조정에 공물을 바쳤는데, 우산국이름 이름대신에 우릉(羽陵)으로 기록되었다.

2) 조선의 공도(空島)정책

울릉도에는 고려 말부터 강원도 연안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산국이 512년 6월 여름 귀복(歸復)하여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관한 영유권의 기록은 없고 대부분 울릉도에 관한 것이므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본다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황희와 태종에 의해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공도정책으로 관리 정책이 바뀌었다.

공도정책은 1403년(태종 3년) 8월 11일 태종이 울릉도 주민이 왜구의 침략 위협 아래에 있는 것을 걱정하던 중 울릉도 거주민을 육지로 이주시키자는 강원도 감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같은 해에 거주민을 육지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다.⁸⁾

울릉도에 몰래 또 들어간 주민 28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세종대 1425년(세종 7년) 10월 20일 김인우를 우산무능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安撫使)로 다시 울릉도에 파견 역을 피해 간 남녀 20인을 수색하여 잡아 데리고 왔다.⁹⁾ 그리고 1438년(세종 20년) 7월 15일에 남회(南會)와 조민(曹敏)을 울릉도 순심경차관(巡審敬差官)으로 임명 파견하여 66명을 수색하여 본토로 송환하였다는 기록과 성종 시대에도 독도를 관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종실록에도 당시 삼봉도로 불리던 독도의 실체를

찾고 이를 답사하기 위해 실행한 기록이 44회나 기록되었다.¹⁰⁾ 동해 한가운데에 삼봉도(三峰島)라는 누구도 한 차례 가보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섬이 있는데 병역과 세금을 벗어나려는 강원도와 함경도 유민들이 바로 그 섬으로 들어가 산다는 말이 있어, 성종 1년(1470년) 12월 11일 조정은 영안도 관찰사 이계손(李繼孫)에게 왕래한 사람을 찾아낼 것을 명한 기록이 있다.¹¹⁾

이상과 같이 종합해보면 병역과 세금 부과를 피해 도망을 간 사람들을 찾기 위함과 왜구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공도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 수 있다(Lee, 2011: 98).

이러한 조선의 공도정책은 일본인들이 울릉도까지 자유로이 출입을 하여 어업을 할 수 있었으며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 무주지(無主地)로 인식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3) 안용복(安龍福)의 의병활동

안용복은 경상남도 부산 지역인 동래부 출신으로 홀 어머니 슬하에 자라났다. 지역에서는 안용복을 효동 또는 재동이라고 칭찬하였다. 건장한 체구에 영민한 안용복은 경상좌수영에 소속된 동래부 산하의 수군(水軍)에 들어가 능로군(能槽軍: 배를 짓는 사공역의 군인)으로 복무하였다(Lee, 2011: 527). 당시 안용복은 부산에 있던 왜관에 출입하면서 일본어를 익혀 일본 말을 잘하였다(Lee, 2011: 527).

당시 수군들은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안용복 등 일행 40명과 함께 울산을 출발하여 울릉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울릉도에는 일본 호키슈 요나코무라의 사람들이 침입하여 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여 일본어를 알았던 안용복과 박어둔이 인질로 잡혀가게 되었다.¹²⁾ 안용복은 오키섬을 거쳐 호키슈 태수의

7) 『高麗史』卷4, 顯宗 10年.

8) 『朝鮮王朝實錄』太宗 卷6, 3年, 8月 11日 丙辰.

9) 『太宗實錄』卷32, 太宗 17年 2月 乙丑條.

10) 『成宗實錄』卷66~126.

11) 『成宗實錄』卷8, 成宗 1年 12月 11日 甲寅.

12) 『肅宗實錄』卷26, 肅宗 20年 2月 23日 辛卯.

문초를 받게 되었는데, 안용복은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다.

이후에 일본의 막부에서 안용복 등을 조선에 송환하라고 지시되었다. 그래서 1693년 6월 30일에 나카사키에 이송된 안용복은 대마도를 거쳐 그해 11월 2일, 동래 왜관으로 송환되었다. 이후 에도막부에서는 안용복 사건을 조사한 후 1696년 1월, 도토리번주와 대마도주에게 일본인의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이 조선에 1697년 1월에 전달되었다.

강원 감사는 8월 29일자 장계에 안용복 일행에 대한 허가 없이 도일한 것에 대한 월경죄로 문제 삼아 처형할 것을 요청했으나, 영의정 유상은 '울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인정하여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킨 것은 안용복의 공로 때문이다'라고 하여 유배형으로 결정되었다.¹³⁾ 유배된 이후에 안용복의 기록은 없어 알 수 없다. 이러한 안용복의 사건에 대해서 조선 조정에서는 1697년부터 울릉도수토제(搜討制)를 정례화하여 울릉도 관리를 체계화했고, 대마도주는 울릉도가 원래 조선 땅임을 인정하여 향후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우호 교린을 다짐하는 답서를 보내왔다. 이로써 안용복에 의한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종결되었다.

수토(搜討)란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알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토제 기원은 1693년 안용복의 1차 도일(渡日)사건 직후, 숙종은 삼척 첨사 장한상으로 하여금 울릉도에 가서 섬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했다. 장한상은 총 150명에 기선 2척, 급수선 4척을 동원하여 1694년 9월 19일에 삼척을 출발하여 다음날 울릉도에 도착, 10월 3일까지 울릉도를 조사하고 10월 6일에 삼척으로 돌아와 수토의 결과를 국왕에게 복명했다. 장한상은 주민을 상주시킬 수 없으므로, 1~2년 간격으로 수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해서¹⁴⁾ 숙종에 의해 울릉도의 수토 방침이 결정되었지만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수토군들은 1694년부터 200년간 울릉도를 왕래하면

서 수도하였고,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세 탐색과 왜인 탐색, 토산물 진상, 인삼 채취 등 임무를 수행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2. 근대이후의 의병 활동

1)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 구성

1952년 7월, 독도는 울릉도 주민에게 생계를 이어갈 일터를 제공해 주는 섬이며, 생명선이나 다름이 없는 섬이다. 그런데 어느 날 괴이한 낫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인에 의하여 자기네 땅이라는 낫말을 세웠던 것이다. 6.25전쟁 중에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인들에 의한 독도를 강점하려고 침탈하게 되었다.

이를 발견한 어부들은 울릉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군청과 경찰서에서는 그 낫말을 뽑아 버렸다. 관할 경찰서와 군청에서는 경북 도지사에게 요청했지만 당시 전쟁 중에 국군을 독도에 배치시킬 여유가 없었다.

당시 상황으로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국무원고시 제14호"로 평화선을 선포하여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외교전으로 전개되어 1952년 7월 이래 한일간에 독도의 영유권을 위해 표주를 서로 설치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Kim, 2011: 18).

홍순철은 울릉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25전쟁시 군에 입대하여 채병덕 장군의 호위병으로 근무하였다. 채병덕 장군이 전사한 후 일선의 전투현장에서 활약하다가 원산 상륙작전시 부상을 당해 1952년 7월 15일 전역하였다. 전역 후 고향 울릉도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되었다(Yang, 2004: 216).

1952년 광복절에 울릉군에 위치한 도동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경축 행사가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 향군 50여 명 속에 홍순철도 포함되었고, 홍순철은 축사를 하게 되었다. 행사 후에 재향군인회 울릉군연합 분회 준비 위원회가 모였고, 5일 후에는 그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이 결성식에서 홍순철이 울릉군연합회 분회장에 선

13) 『肅宗實錄』卷30, 肅宗 22年 9月 2日 乙卯.

14) 『肅宗實錄』卷32, 肅宗 24年 4月 20日 甲子.

출되었으며, 민병대 올릉군 감독관까지 겸하게 되어 독도에 가서 수비하기로 결심한 홍순철로서는 잘 된 일이었다.

홍순철은 독도에 가서 일본인들의 침탈로부터 독도를 지키려는 마음을 먹고 젊은 청년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홍순철은 독도의용수비대에 참여를 권유하는 연설에서 “우리나라가 크나큰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의병이 일어나 국난을 타개했던 우리 조상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심지어 스님들까지 일어나 왜놈들과 싸웠습니다. 하물며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독도는 우리가 살아갈 양식을 얻는 바다의 논이요 밭입니다. 이 문전옥답에 참새가 날아들어도 쫓아야 되거늘 화적 때 같은 일본 놈들이 독도를 침범하는 걸 어찌 바다 건너 불구경하듯 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 백의종군하는 의병으로 동참합시다”(Hong, 1997; Lee, 2015: 77-78)라고, 설득력 있게 연설하자 많은 인원들이 동참하였다.

홍순철은 수비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물리적 강제적으로 동참하게 하거나, 자원이나 보수로써 조직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을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에 참여하는 연설 내용과 같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의병이 일어나 국난을 극복한 조상들에 대해 강조하면서, 삶의 터전인 독도에 대한 애郷심을 바탕으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설득을 시켰다. 즉 애정, 인격존중, 신망, 사명 등 규범적 수단에 기초를 둔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관여가 가장 결정적인 힘을 가지는 조직인 규범적 조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구성하였다.

홍순철은 올릉군수와 올릉군 경찰서장에게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홍순철은 청년 33인과 의기 투합하여 독도의

용수비대를 조직하였다.

2005년 국회에서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¹⁵⁾ 사이에 독도를 지켜낸 33명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로 통칭한다(Kim, 2016: 242).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 1호에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독도에 상륙하여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2018.9.6.).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명단으로 수비대장 홍순철, 부대장 황영문, 제1전대장 서기중, 대원 김재두·최부업·조상달·김용근·하자진·김현수·이형우·김장호·양봉준, 제2전대장 정원도, 대원 김영복·김수봉·이상국·이규현·김경호·허신도·김영호, 후방지원대장 김병렬, 대원 정재덕·한상룡·박영희, 교육대장 유원식, 대원 오일환·고성달, 보급주임 김인갑, 보좌 구용복, 보급선장 정이권, 기관장 안학율, 갑판장이필영·정현권 이상 명단은 1956년 12월 해산 당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과 명단이다(Lee, 2015: 529).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자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명예 제대하여 올릉도로 돌아온 홍순철을 비롯한 역전의 참전용사들이 다시 한 번 목숨을 걸고 의병(義兵)이 되어 올릉도민들의 생활터전인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지켜 내어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고유한 영토주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순수 민간조직을 말한다(Dokdo a Volunteer Guards Commemoration Service Association: 2018.9.6.).

홍순철을 중심으로 독도 수비를 위한 의병들이 규합된 소식은 올릉도 전체에 퍼졌고, 그중 가장 반가워하는 분이 홍순철의 할아버지 홍재현 옹이었다. 옹은 손

15) 한국 정부는 독도의용수비대를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독도수호임무를 수행’한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1996년 독도의용수비대원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면서 작성된 공적조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정의는 홍순철대장의 수기 기록, 유족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시기는 당시 정부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종합해볼 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시기를 동일하게 간주하였다.

자가 필요한 자금, 당시 300만원을 주었다. 홍순철은 본격적으로 독도에 가기 전 필요한 물자들을 구입하는 일 등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홍순철은 무기를 구입하려고 자기 집 소유림의 벌채 허가를 군청에서 얻어 10트럭분의 원목을 벌채하여 일부는 제재소에서 각재로 만들고, 일부는 화목으로 쓰도록 조치하였다. 공화당에서는 전원이 독도에 가기를 희망했으나 40명만 뽑기로 했다(Kim, 1997: 156-158).

홍순철은 할아버지께서 주신 300만원을 갖고 오징어를 구입하여 부산까지 운송하여 판 이익금을 가지고 무기 구입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그렇게 300만원이 500만원으로 불어났고, 위탁받은 오징어를 처분한 수수료 100만원을 합해 600만원으로 무기 구입자금이 조성되었다.

홍순철은 부산, 대구, 포항 등지를 분주히 오가며 옛 전우의 도움을 받아 소기의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중기관총 1정 탄환 3천발, 경기관총 1정 탄환 3천발, M1소총 20정 탄환 3천발, 45권총 2정 탄환 2백발을 성공적으로 입수한 것이다(Kim, 1997: 158).

2)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독도의용수비대의 가장 큰 업적은 독도에 상주하면서 일본이 독도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저지한 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주둔하여 침략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불법 점령하여 '실효적 지배'를 운운 하려는 계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Lee, 2015: 22).

(1) 제1차.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 '즈가루'호 상륙저지

1954년 5월 23일 10시 30분경, 몽돌해변과 상장군 바위 주변에서 우리 어민 30여 명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전방 250미터 거리에서 흰색 일본 순시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홍순철 대장이 쌍안경으로 확인해보니,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즈가루'였다. 총과 대포를 가진 무장선이라서 우리 어민들을 대피시키고, 수비대가 대응자세를 취하는데 해무로 인하여 보이지 않았다.

해무가 거치는 데 2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즈가루호는 없어졌다(Lee, 2015: 22-25). 아마도 바위에 태극기와 '한국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독도'라고 새겨진 것을 보고 한국의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물러난 듯하다.

(2) 제2차. 어업실습선 '다이센호' 퇴치

1954년 5월 29일, 우리 어민 50여 명이 동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홍순철 대장은 보급물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울릉도로 떠났다. 경비를 서고 있는 대원의 쌍안경에 푸른색의 '다이센호'(48t급)을 확인했다. 다이센호는 몽돌해안에 정박하려고 했다. 이중 한 사람이 '독도조난 어민 위령비'등을 사진기로 촬영하였다. 다이센호는 무장하지 않은 돛포리현 어업 실험장의 실습선으로 열한 명이 타고 있었다. 이에 수비대원 6명은 우리 전마선에 타서 출발하고 있었는데, 다이센호에 탑승하였다. 이에 수비대원들은 큰 소리로 야단치기 시작했다. "이봐요! 독도는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한국 땅이니 만큼 어서 물러가시오! 다시 찾아오면 그땐 결코 가만두지 않겠소!" 일본 사람들은 겁을 먹고 배를 돌려 일본 쪽으로 돌아갔다(Lee, 2015: 25-30).

(3) 제3차. 순시선 '나가라'와 '구즈류호' 침범저지

1954년 7월 28일, 독도 영해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나가라'와 '구즈류호'가 침범하였다. 수비대원들은 서도의 물골 앞에서 천막을 세우고 있다가 즉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퇴각할 것을 요구하자 일본 순시선들은 상륙을 포기하고 도망쳤다(Lee, 2015: 31-32).

(4) 제4차. 순시선 '오끼호' 총격 퇴치

1954년 8월 23일 오전 8시경,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끼호'가 700미터까지 접근해 왔다. 보초를 서고 있던 대원이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배에는 대포 2문이 장착되어 있고 갑판 위에는 제복 입은 사람이 3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정시 신호를 보냈지만,

계속해서 상륙하려고 접근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비대원들은 전투태세에 들어갔고, ‘오끼호’를 향해 사격 명령이 내려졌고, 10분간에 걸쳐 600여 발의 기관총탄이 발사되었다. 오끼호 오른쪽에 있는 축전실을 명중시켰고, 이에 오끼호는 뱃머리를 돌려 일본 쪽으로 퇴각하였다(Lee, 2015: 33-38).

(5) 제5차. ‘오끼호’와 ‘나가라호’ 목대포로 퇴치

1954년 9월 이후부터 독도 앞바다에 일본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매달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한 척 내지 세 척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곤 했다.

그래서 홍순칠 대장은 포병 출신 김영호 대원의 아이디어인 목대포로 만들어서 대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속이는 방법을 결정하고 포구 직경 20cm나 되고 포신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목대포에 에나멜 페인트를 바르고, 위장망까지 덮어 진짜 대포처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설치 한 다음날에도 일본 함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 후 일주일쯤, 1954년 10월 2일 아침,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인 ‘오끼호’와 ‘나가라호’가 남서쪽으로부터 독도 연해로 침범해왔다. 그래서 수비대원들은 목대포 위장망을 걷고 순시선쪽으로 향하여 조준사격 자세를 취하였다. 예상대로 ‘오끼호’와 ‘나가라호’는 목대포에 놀란 듯 황급히 일본 쪽으로 사라졌다(Lee, 2015: 39-42).

(6) 제6차. 독도대첩

1954년 11월 21일 해가 밝았다. 대원들이 먼 바다를 살펴보니 전방 해상이 이상했다. 일본 함정이 독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쌍안경으로 확인해보니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무장 순시선 ‘해꾸라호’는 서북 서쪽으로, ‘오끼호’는 동도 쪽으로 독도를 포위하듯 다가오는 것이었다. 배에는 포가 장착되어있고 갑판 위에는 4명 내지 5명 탑승해있다. 수비대원들은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홍순칠 대장은 구체적인 사격 방법까

지 명령을 하달하였다. 오전 7시경 홍순칠 대장의 권총 사격의 사격 신호에 따라 박격포, 중기관총 사격 순으로 쏘았다. 총탄과 포탄들이 수없이 날아들자 ‘오끼호’는 연기를 내뿜는 ‘해꾸라호’를 끌고 일본 쪽으로 도망쳐갔다. 수비대는 박격포 9발, 중기관총 500여 발, 경기관총 500여 발을 일본 함정들에게 사격을 실시하였다(Lee, 2015: 43-49).

독도의용수비대는 전쟁법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쟁법은 정규군뿐만 아니라 민병 또는 의용병단에게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①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휘자에 의해 지휘될 것 ② 원방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고착된 식별표시를 할 것 ③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④ 전쟁의 법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할 것(육전규칙 제1조) 그리고 전쟁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군민병에게 적용하게 된다. ①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② 전쟁의 법과 관습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할 것(육전규칙 제2조)(Kim, 2011: 18-21).

독도의용수비대는 전쟁법상 육전규칙 제2조에 규정된 상기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따라서 군민병 지위에 해당되므로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므로 한국의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 독도의용수비대 구성원은 정규군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군민병의 구성원이라는 합법적인 전투원인 것이다(Kim, 2011: 4-24).

국제법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는 미점령지역인 독도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해 올 때 민병대 또는 의용병단을 조직하여 교전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적에게 대항하는 주민의 집단이므로 이는 군민병의 요건인 미점령지역의 방위, 조직할 시간의 부존재, 미점령지역의 주민 집단, 비조직적 민간인 집단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독도의용수비대는 군민병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주장하였다(Kim, 2011: 20).¹⁶⁾ 따라서 독도의용수비대

16)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25일까지의 기간은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적 상태는 전시가 아니었으므로 전시를 전제로 한 ‘군민병’의 개념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히는 독도의용수비대를 ‘준군민병’으로 보고, 이에 관해서는

는 국제법인 전쟁법상에 지위에 해당되므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3) 독도의용수비대의 위기관리와 의병정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 많은 의병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고 국토수호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바로 그런 전통이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구한 우리 백의민족의 역사에는 무수한 충신과 의병 등 애국지사들이 출현했다. 나라가 외적 침입을 받으면 선비는 붓을 던졌고 백성들은 생업을 버리고 일어나 남녀노소며 빈부귀천 따위의 구별 없이 다 함께 의병이 되어 싸웠다.

기존 연구에서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반적인 의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는 다른 시대의 의병과는 달리 정부에서 역할과는 상관없이 울릉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한 순수 민간조직이다. 그리고 스스로 무장하고 사람들도 살지 않은 동쪽 바다 자그마한 섬 독도에 가서 주둔했다.¹⁷⁾

홍순철의 수기에서는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 깨치는 것은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테지만 그 잘못을 조상의 탓으로 원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 남들은 그냥 노는 게 아니요, 남들 역시 우리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Lee, 2015: 167).

상해 임시정부나 광복군 등 수많은 우국지사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희생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도 못하고 이름 모를 산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신 애국지사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나, 다시는 일본 놈들에게 간섭과 침략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우리가 독도에

서 일본 순시선의 침입을 막고 우리 어선들이 독도해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킨 건 거창한 애국심을 발휘하려던 게 아니다. 또 훗날 훈장을 타고 공적을 남기려 한 것도 아니다. 애국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라고 뜨거운 나라사랑 실천과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하나의 멋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Lee, 2015: 81-82).

독도는 어떠한 명분이든 흥정이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영토이기에 잘 보존함은 물론이요, 생산적인 독도로 발전시켜야 함은 절대적인 우리의 사명이라 하겠다(Lee, 2015: 162).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독려하여 의병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스스로 독도를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필요한 무기도 스스로 구한 유일한 조직이다.

IV. 독도의용수비대 활동의 현대적 함의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활동은 거주지의 군현이나 지역 단위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의병활동은 거주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의병의 구성과 조직도 지역에서 인적, 물적, 자원과 군량도 해당 지역에서 직접 조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지역민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의병은 거주지의 군현이나 지역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의도적으로 모집하여 의병이 조직되었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인 의병은 다른 시대의 의병과는 달리, 지역 단위 또는 정부에서 역할과는 상관없이 울릉도 청년 홍순

“준용’되는 것으로 보았고, 전쟁법은 첫 번째 적대행위로부터 적용되므로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과 첫 번째 적대행위를 한때부터 이는 군민병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17) 김호동은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땅이라는 핏말을 세우는 등 위협을 가해오자 울릉 군청과 경찰서에 찾아가 안전조업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홍순철 대장 수기에 나온 것처럼 민과 관의 상호 협조와 양해 아래 울릉도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민관협동정신에 의해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공식적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독도의용수비대 조직은 홍순철 등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단체로 간주하였다.: 독도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www.dokdofoundation.or.kr/1_1.php (검색일: 2018.11.13.).

철이 개인적 차원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독도의용수비대가 출현하였다.

또한 시대 속에서의 의병운동을 이끌었던 의병장들은 대부분 양반이었으며, 의병군들은 대부분 양인, 농민, 노비층 등이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의 지도자는 지배계급이 아닌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으로 전역한 청년으로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임무수행을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 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다. 이는 대원들간의 향토인 독도에 대한 향토애와 국토 수호의식이 뜨거웠고, 상호간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조직되어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전적·명시적으로 인가”한 바 없으나 독도의용수비대의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사후적·명시적 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의용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의용병은 전시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국가의 인가로 조직된 병력이다 (Kim, 2011: 19).

독도의용수비대의 행위를 대한민국 정부가 사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는 1953년 8월 23일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이 독도의 영해를 침범했을 때 독도의용수비대가 이를 격퇴시킨 후 경상북도 경찰국장이 독도의용수비대장을 격려한 것과(Na, 1996: 54), 경찰국장을 통해 국무총리의 친서가 독도의용수비대장에게 전해온 일과 1956년 12월 25일 울릉 경찰서장이 독도의용수비대장과 독도방위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일과(Na, 1996: 60), 대한민국 정부가 1966년 4월 12일에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철에게 근무공훈장을 수여한 일 등을 들 수 있다(Kim, 1979: 340; Jung, 1996: 32).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독도에 정식 경찰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6.25전쟁 상황으로 독도 주둔할 경찰이 없었다. 홍순철 등 33명에게 독도경비를 맡겨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고, 또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공적을 인정하여 원하는 사람들을 경찰로 특채해서 독도에 주둔시켰다는

사실로도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둔 기간이 8개월이나 3년 8개월이나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의 주둔이 경찰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어 독도의용수비대의 국토수호 정신을 독도경비대가 계승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병은 일회적으로 끝났던 사건이 아닌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출현되었다. 대부분 전통적 사회 속에서 출현되었지만, 독도의용수비대는 전통적 의병정신을 바탕으로 출현된 현대적 의병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독도가 한일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어 독도영유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조직과 활동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의병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을 때마다 출현되었다. 특히 6.25전쟁 중에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인들이 독도를 강점하려고하자, 울릉도 청년 홍순철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독도를 지키려 하였다.

고찰한 결과 다른 시대의 의병은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집하여 의병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독도의용수비대는 울릉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필요한 무기도 스스로 구해서 독도를 지켰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2년 4월 20일에 결성 및 독도에 상륙하여 독도를 수호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는 국제법적으로 ‘군민병’의 지위에 해당되므로 합법적인 교전자이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비정규군이지만 그 구성원은 합법적인 전투원이므로 적대행위의 주체자이고 동시에 객체이다. 따라서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서 사적 기관이 아니므로 국가의 사후적 추인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국토를 수호한 공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일하다. 우리 역사에서 이름도 없이 헌신한 의병활동의 현대적 의병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 지역에서 홍순철 등 33인의 의병활동 출현의 근류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위기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이는 후세에서 기억해야 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이다.

References

- Amitai, Etzioni. 1975.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es*. New York: The Free Press.
- Chae, Kyeong Seok. 2004. *Crisis Management Policy*. Daewang Publishing Company.
- Enforcement Decree of Support for Dokdo Volunteer Forces Act. Presidential Decree 23334.
- Hong, Soon Chil. 1997. *Whose Land Is This?* Hye-An Publishing Company.
- Jang, Soon Soon. 2013. The Kidnapping of An Yong Bok & His Visit to Japan in the Late 17th Century and Their Meanings.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5: 161-196.
- Jung, In Sub. 1996. *An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Hong Moon Publishing Company.
- Kim, Ho Dong. 2008. Search for the Future Research on the Territorial Defense Policy in Joseon Period for the Consolidation of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The Journal of Dokdo*. 5: 142-166.
- Kim, Ho Dong. 2010. A Suggestion to Succeed Dokdo Voluntary Guard Spirit. *The Journal of Dokdo*. 9: 257-277.
- Kim, Jum Gu. 2016. Dokdo Volunteer Force, the Activity When it's Time to See you Again. *History Opening Tomorrow*. 64: 242-264.
- Kim, Kang Nyeong. 2011. Korean Spirit for Defending Their Own Country and Overcoming the National Crises. *National Ideology*. 5(2): 209-255.
- Kim, Kyo Sik. 1979. *Dokdo Garrison*. Sun Moon Publishing Company.
- Kim, Myung Ki. 2011.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Volunteer Corps for Defense Dokdo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Korean Journal of Humanitarian Law*. 31: 3-25.
- Kim, Sang Ki. 1996.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the Righteous Army Movement. *Ethnic Culture and Righteous Army Thought*. 1(1): 23-47.
- Lee, Hae Young. 1996.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Righteous Army's Movement. *Ethnic Culture and Righteous Army Thought*. 1: 71-97.
- Lee, Jin Ho. 2011.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n Studies Information Publishing Company.
- Lee, Yong Won. 2015. *Dokdo Volunteer Forces: The Activity of 33 Heros to Protect Dokdo*. Bum Woo Publishing Company.
- Na, Hong Ju. 1996. *Japan's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justice under International Law*. Keum Gwang Publishing Company.
- Na, Hong Ju. 2009. Reality of Dokdo Issue and the Countermeasure. *The Journal of Dokdo*. 6: 7-48.
- Na, Hong Ju. 2017. A View on How To Protect Korean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n Appreciation of the Fact that Japanese Claim over Dokdo Can not Stand without Violating International Law Concerned. *The Journal of Dokdo*. 22: 207-237.
- Nam, Kee Hoon. 2005. Chosun's and Japan's Positions on Ullungdo and Dokdo in the 17th Century.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23: 1-38.
- Oh, Il Whan. 2017. Significance of the Anti-Japanese Volunteer Soldier Resistance as a Supererogation. *National Ideology*. 11(3): 9-55.
- Park, Byung Seob. 2012. The Issue of Sovereignty over the Dokdo Since the Case of An Yong-bok. *The Journal of Dokdo*. 13: 135-166.
- Shin, Un Yong. 2008. The Activities of Jung-keun Ahn in a Righteous Army. *Historical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54: 5-44.
- Son, Seung Chul. 2014. Isabu, Marine Hero and the Descendant of the East Sea. *The Review of Isabu and East Sea*. 7: 203-217.
- Support for Dokdo Volunteer Forces Act. Act 11028.
- Yang, Tae Jin. 2004. *The Symbol of Korean Independence*. Baek San Publishing Company

- Yoo, Joon Ki. 2004. History of Modern Korean Movement and National Sprit.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3(1): 25-37.
- Yoon, Chun Geun. 1996. Righteous Army, the Culture of Righteous Army The sprit of Righteous Army. *Ethnic culture and Righteous Army Thought*. 1(1): 3-22.
- Yoon, So Young. 2016. A Re-examination of Hong Jae Hyun's Visit to Shimane(1898) and His Life in Ulleungdo. *The Journal of Dokdo*. 20: 37-66.
- 《高麗史》 《三國史記》 《成宗實錄》 《肅宗實錄》 《朝鮮王朝實錄》 《太宗實錄》
- Dokdo a Volunteer Guards Commemoration Service Association. http://www.dokdofoundation.or.kr/1_1.php.
- Doopedia Homepage. <http://www.doopedia.co.kr>.
- Korean National Culture Encyclopedia Homepage. <http://encykorea.aks.ac.kr/>
-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Homepage. www.law.go.kr.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김강녕. 2011. 한국인의 호국정신과 국난극복. *민족사상*. 5(2): 209-255.
- 김교식. 1979. 독도수비대, 선문출판사.
- 김명기. 2011. 국제인도법상 독도의용수비대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인도법논총*. 31: 3-25.
- 김상기. 1996. 의병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민족문화와 의병사상*. 1(1): 23-47.
- 김점구. 2016.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 시기를 다시 본다. *내일을 여는 역사*. 64: 242-264.
- 김호동. 2008. 독도 영유권 광고화를 위한 조선 시대 수토제도의 연구방향 모색. *독도연구*. 5: 142-166.
- 김호동. 2010.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을 위한 제안. *독도연구*. 9: 257-277.
- 나홍주. 199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금광출판사*.
- 나홍주. 2009. 독도문제의 실체와 그 대응책. *독도연구*. 6: 7-48.
- 나홍주. 2017. 독도영토주권수호 고찰: 일본측 주장의 국제법 위반 비판을 중심으로. *독도연구*. 22: 207-237.
- 남기훈. 2005. 17세기 조·일 양국의 울릉도·독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23: 1-38.
- 박병섭. 2012.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 135-166.
- 손승철. 2014. 이사부, 동해의 해양영웅과 그 후예들. *이사부와 동해*. 7: 203-217.
- 신운용. 2008. 안중근의 의병투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 5-44.
- 양태진. 2004.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백산출판사*.
- 오일환. 2017. 초과의무로서의 항일의병항쟁의 의의. *민족사상*. 11(3): 9-55.
- 유준기. 2004. 한국근대민족운동사와 민족정기. *한국보훈논총*. 3(1): 25-37.
- 윤소영. 2016. 울릉도민 홍재현의 시마네현 방문(1898)과 그의 삶에 대한 검토. *독도연구*. 20: 37-66.
- 윤천근. 1996. 의병·의병문화·의병정신. *민족문화와 의병사상*. 1(1): 3-22.
- 이용원. 2015. 독도의용수비대: 독도를 지켜낸 영웅 33명의 활동상. *범우사*.
- 이진호. 2011. 독도영유권 분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학술정보*.
- 이해영. 1996. 의병운동의 사상적 배경. *민족문화와 의병사상*. 1: 71-97.
- 장순순. 2013. 17세기 후반 안용복의 피랍, 도일사건과 의미. *이사부와 동해*. 5: 161-196.
- 정인섭. 1996.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 채경석. 2004. 위기관리정책론. *대왕사*.
- 홍순철. 1997. 이 땅이 누 땅인데. *헤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http://www.dokdofoundation.or.kr/1_1.php.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34호. 2011.11.30.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법률 제11028호. 2011.8.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Amitai, Etzioni. 1975.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es*. New York: The Free Press.

독도의용수비대의 위기관리와 현대적 의병정신

국문초록 독도영유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조명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는 6.25전쟁으로 인한 국가 혼란 속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에 맞서 독도를 지켜낸 현대적 의병이다. 다른 시대의 의병 활동 출현의 근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직된 것이었으나, 독도의용수비대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직하였기에 그 의의가 더욱 크며 계승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제어 : 의병, 의병정신, 독도, 독도의용수비대

Profiles **Seung Hak Na** : He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2015 for “A Study on Factors of Change of Korea-US Alliance after the Post-Cold War.” He has been a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for five years and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of military science at Cheongju University. Areas of interest include defense policy and strategy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ing Solidarity in Na-Tang alliance: On Military Perspective,” etc(shakna@naver.com).